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헌신예배입니다.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목장 연합 찬양대입니다.
3.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오늘 오후 추풍령교회 제직수련회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4. 매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① 시간 : 금요일 오후 8시 ② 장소 : 사랑관 금주 금요일(2월 20일) 금요기도회는 쉽니다.
5. 설날가정예배 순서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신일문화교실 강좌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① 강좌 :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② 문의 : 윤현덕집사(010-7182-2978)
7. 여전도연합회 책사대회가 있습니다. ① 시간 :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② 장소 : 사랑관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고숙자, 남동균, 김성원, 장지혜, 남경희, 이문희, 마주성, 박희난, 김준열, 김춘복
- 식사대접 : 백춘현, 엄임순집사 아들의 결혼식에 베푸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양	금주 수요일양	오늘 식사봉사	금요기도회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2남전도회	남7, 8목장	제4여전도회	금요일8시(사랑관)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배후(각교실))

◆ 2월 행사

- 1일 : 신일비전헌신예배, 정기제직회
- 8일 : 각 기관 월례회
- 15일 : 목장헌신예배
- 22일 : 정기당회

◆ 2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남, 정영주

◆ 2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역, 이진애, 주정주, 하문숙

새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최 영 준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26장(구14장)
새277장(구335장)
목마른 사슴

기 도 1부/박근용 장로
2부/우성한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복음 10:11~18 (신 P162)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아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우리의 선한 목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568장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남동균 장로
2부 / 양문주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목장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김 제 곤 장로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이옥영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창세기 49:13~28(구 P78)

찬 양 목장연합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분량대로 받는 축복

헌 금 새217장(구362장)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설교자

☛ 다음주 기도 / 정홍재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491장(구543장) 다같이

기 도 정혜민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히브리서 11:13~16(신 P365)

말씀선포 설교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목장찬양 남7, 8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9, 10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복금 권사

Since. 1978

No 7. 2015. 2. 15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영준
강 도 사 정기훈
전 도 사 김금분
장 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숙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주 반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대합니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배시간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	본 당
	수요기도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심야기도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제자교육	수요전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장성경공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년말투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안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르파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벨엘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이성은, 김지호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김영하,노시래(구남량),노영민,박상임,박순국(조수정),박유연,박해진,백춘현(엄임순),손승희,안재경(정은숙),윤성욱(김신혜),이선환,이성은(정),이윤희(최길자),임용천(정분희),전민규,전양순,조남년,우영

✦ 감사헌금

김예림,강일창(고숙자),강철원(이지영),김금분,김명권(정영주),김영하,김선숙,김연태,김재홍(한영자),김재근(한영실),김종남,김진운(김남주),박근용(최윤자),박석문(정인선),박순국(조수정),박영숙,박윤서,박은정,박현희,박해진,백춘현(엄임순),성형건(윤송희),소재역(김미화),신동영(강경숙),심하숙,안재경(정은숙),안주모(조양순),안진성,안효준,오민욱,오승업(김영희),원용국(김복금),원지은,윤성욱(김신혜),이은정,이은희,정기훈(최연욱),정육근(이경미),정이덕(한상문),정태수(김정희),정효성,조준희,진예선,최영준(한은정),황돈수(곽정자),우영3

✦ 선교헌금

김건국(김성욱),김영순,노시래(구남량),박상임,박영숙A,백춘현(엄임순),전민규,정육근(이경미),조남년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김건국(김성욱/도희),남동균(윤현덕),남용민,안스디자인,안영래(영민/혜린),안재경,이영일(홍은미),이재현(이희라),이태근(엄경지),장은숙(소연/진형/진성),정육근(이경미)

✦ 목적헌금

김종남

✦ 장학헌금

김종남,정육근(이경미)

✦ 비전헌금

이진석(윤해진),조남년

목장현황

2015.2.2~2.8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회	13	39,000	130	교회	043초원	5 김채욱	교회	3	7,000	17	교회
	2 강일창							교회	3	8,000	76	교회	
남2초원	3 김재근	교회	3	13,000	52	교회	044초원	7 광복님	교회	5	15,000	49	교회
	4 김명권	교회	3	15,000	45	교회		8 성영욱	교회	2	10,000	70	교회
남3초원	5 남동균	남동균	2	20,000	81	원용국	045초원	9 구남량	교회	3	14,000	50	교회
	6 안재경	남동균	4	18,000	42	원용국		10 정혜민	교회	1	5,000	10	교회
남4초원	7 오승업	교회	1	3,000		교회	046초원	11 함현숙	남동균	1	5,000	30	원용국
	8 소재역	교회	1			교회		12 김복금	남동균	2	5,000	90	원용국
남5초원	9 이진석	교회	1			교회	047초원	13 정육자	교회	3	5,000	25	교회
	10 이인호	교회	1			교회		14 이경미	교회	2	20,000		교회
042초원(실버)	1 김명자	교회	4	18,000	130	교회	048초원	15 신윤경	교회	3	8,000	41	교회
	2 김명숙	교회	4	12,000	140	교회		16 김춘복	교회	1	4,000	5	교회
042초원(실버)	3 권월성	교회	4	13,000	196	교회	049초원	17 김혜정	교회	3	4,000	20	교회
	4 정채순	교회	4	12,000	115	교회		18 엄검지	교회	1			교회

금주의 말씀

우리의 선행 목자

요한복음 10:11~18

예수님께서 "나는 선행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행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1.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선행 목자라 선행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선행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 자원적인 죽음입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원적인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허물된 인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2)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양 대신 죽으심으로 죽을 양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먼저 죽음으로써 자기 양들을 살려 놓고, 이차적으로 자기 자신도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양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3) 영원히 함께 살기위한 죽음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양의 생명만 살리고 끝난 죽음이 아닙니다. 양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양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와 (말미암아)라는 두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서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주님만이 선행목자, 참된 지도자입니다.

2.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행 목자이십니까?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어떻게 양을 인도하십니까?

1)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3절을 보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준다는 말은 중대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① **주님의 세심한 개인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고 불러내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선행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②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도 알고, 기질도 알고, 성향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압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 나의 이름, 나의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형편대로 각각 인도하여 주십니다.

2) 앞서 인도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앞서 가다가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시켜 놓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 앞에 무릎 꿇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해주기 때문입니다.

②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선행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해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해주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십니다. 울창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히 있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시편23:3절 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는 말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3.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공급자이십니까?

1)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 축복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먹이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에 찌들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건강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헌신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온갖 걱정에도 파묻혀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